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최근 소비심리 움직임의 특징과 시사점
- 저소득층, 고령층 소비심리 악화

목 차

■ 최근 소비심리 움직임의 특징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소비심리와 실제소비	2
3. 부문별 소비지출전망	6
4. 시사점	11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관 : 주 원 수석연구위 원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본부 : 김 천 구 선 임 연 구 원 (2072-6211, ck1009@hri.co.kr)

□ 최근 소비심리 움직임의 특징과 시사점

- 저소득층, 고령층 소비심리 악화

■ 개요

경제는 심리라 할 정도로 경제주체들의 미래에 대한 판단은 향후 경제의 방향성에 중요하다. 경제주체 중 소비자들이 미래를 보는 시각을 종합한다면 향후 경기가 어떤 흐름으로 흘러 갈 것인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소비심리와 실제소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품목별, 소득계층별, 연령별 소비심리지표의 장기평균(2008.7~2015.7)대비 현재 수준과 소비심리지표 흐름의 방향성을 살펴보았다.

■ 소비심리와 실제소비

소비심리지표 중 가계의 실제소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표는 소비지출전망과 개별 소비자동향지수를 종합한 소비자심리지수이다. 두 가지 소비심리지표와 실제소비 지표인 민간소비, 소매판매액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소비심리지수는 실제소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동분기와 1분기 선행하여 영향을 미친다.

추가적으로 품목별 소비심리와 실제소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기민감 품목인 내구재, 의류비, 외식비, 교양·오락·문화 등이 소비심리와 실제소비 간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필수소비 품목의 경우 소비심리가 위축되더라도 가계가 실제로 소비를 줄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부문별 소비지출전망

품목별, 소득계층별, 연령별로 소비심리지표가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방법은 소비지출전망의 장기평균대비 현재 수준 비교, 소비지출전망의 추세적 움직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소비항목) 경기민감 품목의 경우 최근 경기 침체와 메르스의 영향으로 외식비, 여행비, 교양·오락·문화 등의 소비심리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다. 소비심리 수준은 의류비, 교양·오락·문화 등이 장기평균대비 현재 소비심리가 크게 낮았다. 필수소비 품목은 의료·보건, 교육 등 품목에서 장기평균대비 현재 소비심리가 낮았다. 소비심리 추세를 살펴보면 의료·보건, 교육비는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으로 소비지출 부담이 완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교통·통신비에 대한 지출전망은 유가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최근 버스, 지하철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으로 상승세다.

(소득수준) 고소득층의 경우 과거와 유사한 수준의 소비심리가 유지되고 있었다. 반면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소비심리는 장기평균과 괴리가 컸다.

소비지출전망 추세 역시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소비심리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 종사하는 일자리는 일용·임시직, 영세 자영업 등이 많아 경기 침체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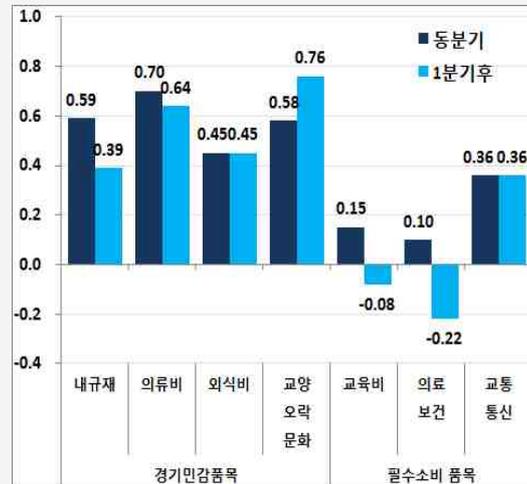
(연령)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장기평균대비 소비심리의 차이가 컸다. 50대 가구는 비교적 장기평균과 현재 소비심리에 차이가 작았지만, 나머지 연령대 가구는 고령층으로 갈수록 장기평균과 현재 소비심리 간 격차가 커졌다. 특히 고령 가구는 추세적으로도 소비심리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가구는 기초연금 시행 전후로 소비지출 전망이 상승했지만, 최근 경기 침체, 노후 불안감 확대 등으로 소비심리가 더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 소비심리지수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품목별 소비지출전망지수와 소비지출 증가율 시차 상관계수 >



자료 :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이 산출.

■ 시사점

최근 저소득층,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소비심리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 향후 실제소비가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소비심리 악화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확장적 재정정책 유지, 기업 투자 확대, 경기민감 산업 지원 등을 통하여 경제주체의 소비심리 악화를 차단해야한다. **둘째**, 급락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소비심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이 필요하다. **셋째**, 고령층의 소비심리가 악화되지 않도록 사적연금 활성화, 가교 일자리 마련 등을 위한 정책도 보완되어야 한다.

1. 개요

○ (연구배경) 소비자의 경제에 대한 인식과 향후 소비지출 전망 등은 실제 소비지출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

- 경제는 심리라 할 정도로 경제주체들의 미래에 대한 판단은 향후 경제의 방향성에 중요
 - 소비자와 기업들이 미래를 보는 시각을 종합한다면 향후 경기가 어떤 흐름으로 흘러 갈 것인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경제주체 중 소비자들의 경제심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는 소비자동향지수(CSI : Consumer Survey Index)가 있음
 - 소비자동향지수는 소비자의 경제에 대한 인식과 향후 소비지출 전망 등을 설문조사하여 그 결과를 지수화한 것
 -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및 전망이 실제 소비지출과 단기적인 경기변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근거함
- 가계의 소비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 중 관찰되지 않는 소비자들의 심리적 변화를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동향지수는 유용
 - 소비 심리지표는 일시적으로 실제 소비와 다소 괴리¹⁾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짐
 - 한국은행의 민간소비 자료는 분기 간격으로 발표되고 집계 후 공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나, 소비자동향지수는 월별로 집계되고 발표 시점이 빠르다는 점 등으로 속보성에서 우수
- 만약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점차 낙관적으로 변한다면 소비자들이 저축보다는 소비를 늘릴 것이며 이는 실제 경제 회복에 도움
 - 반대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 실제 소비 위축→기업 이익 감소→가계의 소득 감소→소비심리 위축 등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연구목적) 본 보고서에서는 소비심리와 실제소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품목별, 소득계층별, 연령별 소비심리지표의 장기평균대비 현재 수준 비교와 소비심리지표 흐름의 방향성을 살펴봄

1) 소비심리와 실제소비가 괴리되는 원인은 미래정보 및 기대수준의 반영 여부, 질적 통계와 양적 통계 간의 조사 척도 차이,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등에 기인.

2. 소비심리와 실제소비

○ (소비심리 관련 지표) 가계의 소비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소비지출전망과 개별 CSI를 종합한 소비자심리지수임

- 소비자동향지수(CSI : Consumer Survey Index)는 소비자의 경제에 대한 인식과 향후 소비지출전망 등과 관련된 24개 항목으로 구성
 - 소비자동향지수는 0~200까지의 값을 갖는데, 지수가 100을 넘으면 긍정적인 답변이 부정적인 답변보다 많은 것을 의미하며 100 이하는 반대를 의미
- 개별 CSI 가운데 경제지표와 연관성이 높은 것을 가중 평균한 소비자심리지수(Composite Consumer Sentiment Index) 역시 소비자들의 경제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파악하는데 사용
 - 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등 6개 지수를 표준화하고 합성하여 산출함
 - 소비자심리지수 100은 과거 조사된 소비자심리의 장기평균치를 의미하며, 지수가 100을 넘으면 소비자가 현재 경기 상황을 과거 평균 수준보다 좋다고 인식하는 것이며 100 이하는 반대를 의미
- 소비자동향지수 중 직접적으로 가계의 소비지출 심리와 관련이 되는 지표는 소비지출전망과 개별 CSI를 종합한 소비자심리지수
 - 소비지출전망은 내구재, 교육비, 의료·보건비, 주거비 등 품목별 및 소득수준별, 연령별로도 자료가 제공되어 좀 더 세밀한 분석에 유용함

< 소비자동향지수 항목 >

구분	조사항목
경제인식	현재생활형편, 현재경기판단
경제전망	생활형편전망, 향후경기전망, 취업기회전망, 금리수준전망
소비지출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내구재, 의류비, 외식비, 여행비, 교육비, 의료·보건비, 교양·오락·문화생활비, 교통·통신비, 주거비)
가계저축및부채	현재가계저축, 가계저축전망, 현재가계부채, 가계부채전망
물가전망	물가수준전망, 주택가격전망, 임금수준전망

○ (소비심리지수 동향) 소비심리지수는 최근까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메르스와 경기회복 속도 미진 등으로 소비심리가 2015년 6월과 7월에 큰 폭으로 위축

- 가계의 소비자심리지수는 2013년 말에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
 - 2012년 12월 98p로 기준치를 하회하던 소비자심리지수는 2014년 1월 112p까지 꾸준히 상승하였음
 - 최근에도 기준치인 100p를 상회하고 있었으나 메르스 여파, 경기회복 속도 미진 등으로 6월 99p, 7월 100p로 낮아짐
 - 가계의 6개월 후 지출전망을 나타내는 소비지출전망 역시 2014년 1월 112p를 기점으로 하락 추세임

- 실제 소비지표인 민간소비는 2015년 1/4분기까지 둔화세를 보였으며 소매판매액지수는 최근 소폭 반등하는 모습
 - 민간소비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2014년 2/4분기 이후 1%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5년 2/4분기에도 1.6%를 기록
 - 가계 소매판매액지수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최근 3~4%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

< 소비심리지수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민간소비 및 소매판매액 증가율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 (상관관계) 소비심리지수는 실제소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분석결과 동행 또는 1분기 선행성을 나타내고 있음

- 한국은행의 민간소비와 소비자심리지수의 관계를 살펴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동분기와 1분기 후 민간소비에 영향
 - 분석기간은 2008년 3/4분기부터 2015년 2/4분기까지며 소비지출전망 및 소비자 심리지수와 한국은행의 민간소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을 대상으로 분석함
 - 소비자심리지수와 민간소비의 상관관계는 당분기 0.77, 1분기후 0.89로 현재와 1분기 후 민간소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비지출전망과 민간소비의 상관관계 역시 현재와 1분기 후(0.87~0.73)으로 높았음

< 소비심리지수와 민간소비 증가율 시차 상관계수 >

	상관계수			
	당분기	1분기후 소비	2분기후 소비	3분기후 소비
소비지출전망 지수	0.87***	0.73***	0.40*	-0.11
소비자 심리지수	0.77***	0.89***	0.69**	0.21

주 : ***는 유의수준 1%, **는 유의수준 5%, *는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함을 의미.

- 통계청의 소매판매액지수와 소비자심리지수 간 관계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아도 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와 1분기 후 소매판매액지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냄
 - 분석기간은 2008년 3/4분기부터 2015년 1/4분기이며 소비지출전망 및 소비자 심리지수와 통계청 소매판매액지수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을 대상으로 분석함
 - 소비자심리지수와 전년동기대비 소매판매액지수의 상관관계는 당분기 0.77, 1분기 후 0.77로 현재와 1분기 후 민간소비에 영향이 컸음
 - 소비지출전망과 소매판매액 간 상관관계 역시 현재와 1분기 후 각각 0.84, 0.60으로 높았음

< 소비심리지수와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 시차 상관계수 >

	상관계수			
	당분기	1분기후 소비	2분기후 소비	3분기후 소비
소비지출전망 지수	0.84***	0.60***	0.24	-0.24
소비자 심리지수	0.77***	0.77***	0.50**	0.02

주 : ***는 유의수준 1%, **는 유의수준 5%, *는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함을 의미.

○ (품목별 상관관계) 내구재, 의류비, 외식비, 교양·오락·문화 등이 소비심리와 실제소비 간 상관관계가 높음

- 소비지출전망을 경기 상황에 따라 소비 변동이 큰 경기민감 품목과 가계가 경기 변화에도 지출을 늘리거나 줄이기 어려운 필수소비 품목으로 나누어 분석
 - 분석기간은 2008년 3/4분기부터 2015년 1/4분기까지며 품목별 소비지출전망과 가계의 목적별, 형태별 최종소비지출 자료 이용
 - 내구재, 의류비, 외식비, 국내·해외여행비, 교양·오락·문화 등은 경기 상황에 따라 가계가 소비를 늘리거나 줄이기 쉬움
 - 이에 반해 의료·보건, 교육, 교통·통신, 주거비 등은 가계 경제가 좋지 않더라도 소비를 줄이기 어려운 품목임
- 실제 내구재, 의류비, 외식비, 교양·오락·문화 등은 소비심리와 실제소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지만 필수소비 품목은 둘 간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았음
 - 경기민감 품목의 소비심리가 위축된다면 가계는 미래에 이들 품목에 대한 실제소비를 줄일 가능성이 높음
 - 소비심리와 실제소비의 상관관계는 의류비, 교양·오락·문화, 내구재, 외식비 순으로 높았음
 - 필수소비 품목의 경우 소비심리가 위축되더라도 가계가 실제로 소비를 줄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품목별 소비지출전망과 소비지출 증가율 시차 상관계수 >

	경기민감 품목				필수소비 품목		
	내구재	의류비	외식비	교양오락 문화	교육비	의료보건	교통통신
동분기	0.59***	0.70***	0.45**	0.58***	0.15	0.10	0.36
1분기후	0.39**	0.64***	0.45**	0.76***	-0.08	-0.22	0.36

주 : 1) ***는 유의수준 1%, **는 유의수준 5%, *는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함을 의미.
 2) 품목별 소비지출전망과 국민계정상 가계의 최종소비지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3) 주거비는 시계열이 짧고 여행비는 자료 부재로 분석에서 제외.

3. 부문별 소비지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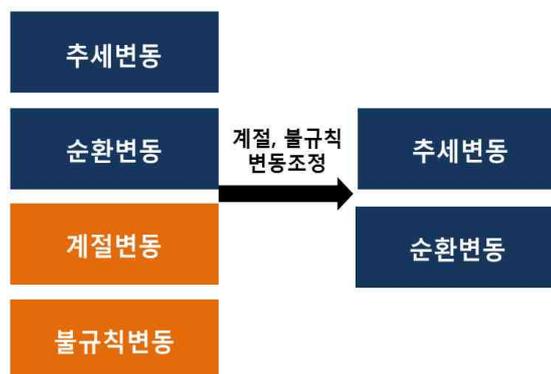
○ (분석방법) 부문별 소비지출전망을 살펴볼 때 현재 수준이 장기평균 보다 높은가와 추세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두가지로 나누어 평가

- 기존 연구²⁾에 따르면 미래의 소비지출을 예측할 때 전망지수가 기준점인 100을 넘는가 보다는 장기평균보다 높은지 여부와 몇 개월 동안 어떤 방향으로 변하는지 여부가 미래소비를 예측할 때 더욱 중요
 - 또한 소비지출전망은 자료상에 계절적 요인과 일시적인 충격 등이 영향을 미치므로 추세를 살펴볼 때 계절변동³⁾과 불규칙변동⁴⁾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부문별 소비지출전망CSI를 살펴볼 때 현재 수준이 장기평균 보다 높은가와 추세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두가지로 나누어 평가
 - 소비지출의 현재 수준은 가장 최근 통계값인 2015년 7월수치를 기준으로 하며 장기평균은 월별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2008년 7월부터 현재까지 평균값으로 정의함
 - 소비지출전망의 추세는 원계열에서 비경기적 요인인 계절변동과 불규칙변동을 제거한 후 방향성을 살펴봄
 - 계절요인은 X-12 ARIMA 방법을 이용하여 제거하며, 불규칙요인은 3개월 말항 이동평균법을 사용하여 제거함

< 소비지출전망의 분석 방법 >

	분석 방법	비고
수준	장기평균<현재수준	장기평균대비 지출전망 높음
	장기평균>현재수준	장기평균대비 지출전망 낮음
추세	추세·순환변동 ↑	소비심리 상승추세
	추세·순환변동 ↓	소비심리 하락추세

< 원통계의 계절, 불규칙 변동조정 >



2) “소비지출 영역별 소비자전망지수와 실제소비”, 김경자(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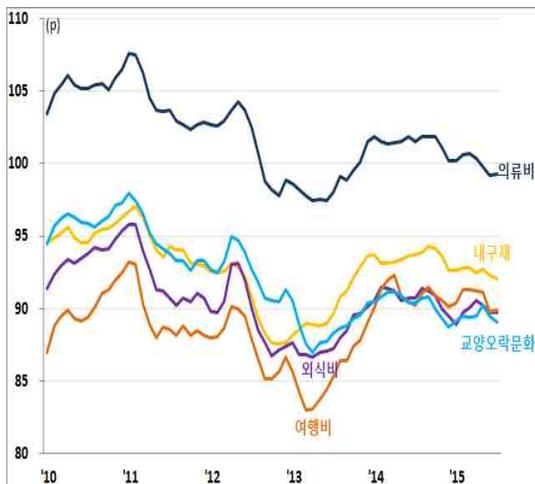
3) 계절변동요인은 계절변화와 대개 1년을 주기로 반복해서 발생하는 변동.

4) 불규칙변동요인은 자연재해, 파업 등과 같이 예측 불가능한 변동.

○ (소비항목별) 경기 침체와 메르스의 영향으로 경기민감 품목의 소비심리가 하락하는 추세이며, 필수 소비 품목 중 의료·보건, 교육비는 소비지출 부담이 줄었지만 교통·통신비는 최근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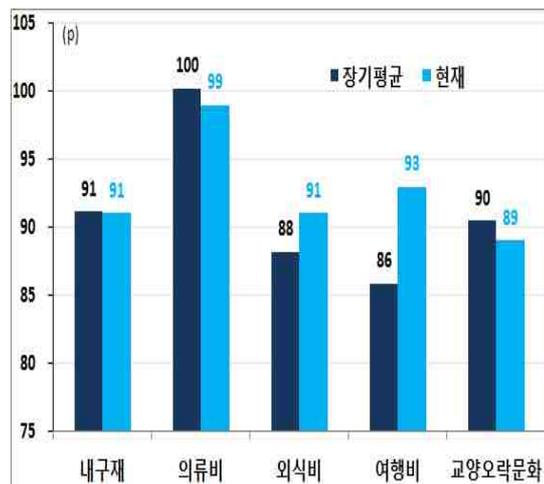
- 경기민감 품목의 소비지출전망 중 최근 경기 침체와 메르스의 영향을 크게 받는 외식비, 내구재, 교양·오락·문화 등의 소비심리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는 추세
 - 내구재, 여행비의 소비지출전망 수치는 2013년 이후부터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다 2014년 이후 점차 하락
 - 이외에 외식비, 의류비, 교양·오락·문화 등의 소비지출전망 수치는 최근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는 추세임
- 의류비, 교양·오락·문화 등은 장기평균보다 현재 소비심리가 낮았으며 내구재는 장기평균과 유사한 수준임
 - 외식비, 여행비는 과거 평균적인 수준보다 현재 소비지출전망이 높았음
- 따라서 경기민감 품목의 소비심리와 실제소비 간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향후 소비심리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품목에서 소비 침체가 나타날 가능성
 - 특히 최근 소비심리가 하락 추세인 외식비, 여행비, 교양·오락·문화 등에서 실제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됨

< 경기민감 소비 품목 소비지출전망 추세 >



자료 :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 연구원이 산출.

< 경기민감 소비 품목 소비지출전망 수준 >



자료 :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 연구원이 산출.

주 : 현재는 2015년 7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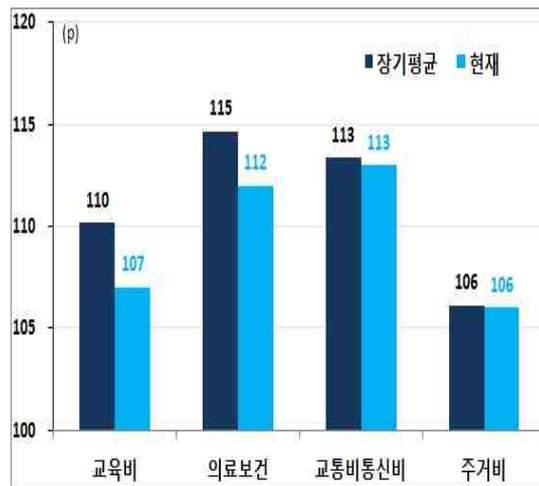
- 필수 소비 품목 중 의료·보건, 교육비는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으로 소비지출 부담이 완화되고 있지만, 교통·통신비에 대한 지출전망은 유가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으로 상승
 - 교육비, 의료보건 등의 소비지출전망은 2011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임
 - 교통·통신비의 경우에도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지만 최근 버스비, 지하철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으로 상승하고 있음
- 가계의 필수 소비 지출 항목인 의료·보건, 교육 등의 지출전망은 모두 장기평균보다 현재 소비지출 전망이 낮았음
 - 교육비, 의료·보건에 대한 지출전망이 장기평균보다 비교적 크게 낮았으며 교통·통신비, 주거비의 경우 장기평균과 유사한 수준임

< 필수 소비 품목 소비지출전망 추세 >



자료 :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 연구원이 산출.

< 필수 소비 품목 소비지출전망 수준 >



자료 :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 연구원이 산출.

주 : 현재는 2015년 7월 기준.

○ (소득수준별)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소비심리가 최근 급락

- 저소득층인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소비지출전망 추세를 보면 소비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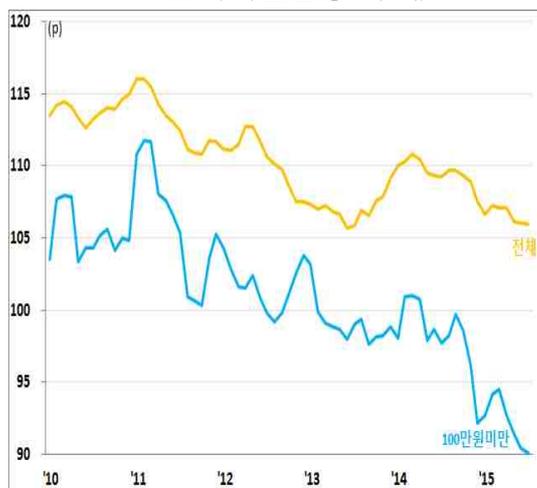
리가 최근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소비지출 전망은 20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2014년 하반기부터 급락하는 추세임
-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는 일반적으로 일용·임시직, 영세 자영업 등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경기 침체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보임

- 고소득층의 경우 과거와 유사한 수준의 소비심리가 유지되고 있지만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소비심리는 장기평균과 괴리가 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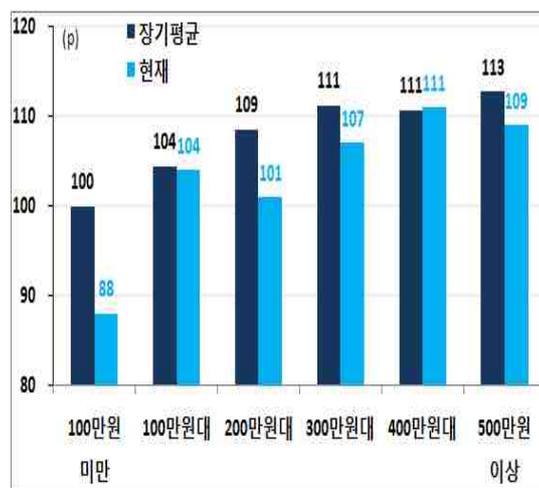
-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인 저소득 가구는 소비지출전망이 약 88p로 장기평균인 100p보다 크게 낮았음
- 소득수준이 월 200만원대 가구 역시 장기평균 보다 8p 정도 낮았음

<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 소비지출전망 추세 >



자료 :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 연구원이 산출.

< 소득수준별 소비지출전망 수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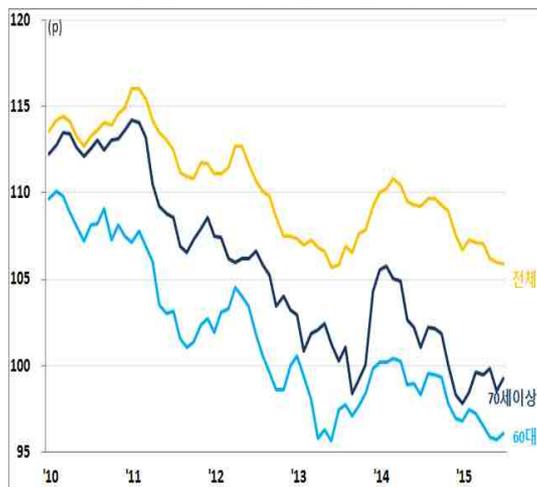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 연구원이 산출.

주 : 현재는 2015년 7월 기준.

- (연령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장기평균대비 현재 소비심리가 크게 낮았으며, 특히 고령 가구의 소비심리는 최근 경기 침체, 노후 불안감 등의 영향으로 크게 악화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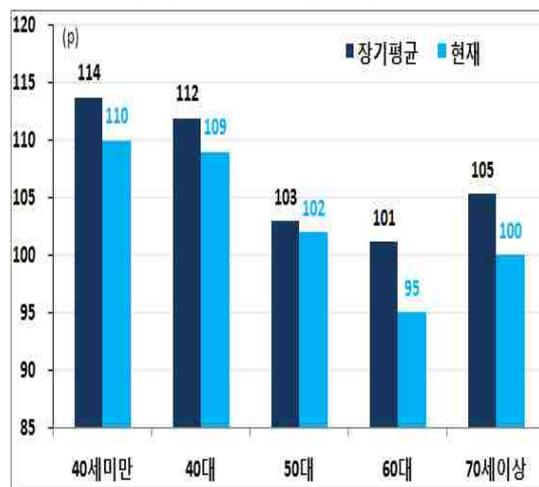
- 고령 가구는 기초연금⁵⁾ 시행 전후로 소비지출 전망이 빠르게 높아졌으나 최근 경기 침체, 노후 불안감 확대 등이 고령층 소비심리 악화에 크게 영향을 미쳐 소비심리가 크게 악화
 - 가구주 연령이 70세 이상인 가구의 소비지출 전망은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초까지 크게 개선된 이후 최근에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
 - 가구주 연령이 60대인 가구 역시 70세 이상 가구와 동일한 패턴으로 소비지출 전망이 하락하고 있음
 - 실제 60세 이상 고령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 1/4분기 기준 전체 평균인 72.3%에도 크게 못 미치는 68.3%를 기록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장기평균과 현재 소비심리의 괴리가 크며 특히 고령 가구의 소비지출전망이 낮았음
 - 가구주 연령이 70세 이상인 가구의 소비지출전망은 약 100p로 장기평균인 105p보다 5p 낮았음
 - 가구주 연령이 60대인 가구 역시 소비지출전망은 약 95p로 장기평균인 101p보다 6p 낮았음
 - 다만 50대 이하 가구는 소비지출전망이 장기평균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

< 고령층 소비지출전망 추세 >



자료 :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 연구원이 산출.

< 연령별 소비지출전망 수준 >



자료 :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 연구원이 산출.

주 : 현재는 2015년 7월 기준.

5) 기초연금 제도는 2014년 7월 1일 시행되었으며, 만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 지급.

4. 시사점

○ 최근 저소득층,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소비심리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 향후 소비가 더욱 침체될 가능성이 상존

- 외식비, 여행비, 교양·오락·문화 등의 소비심리가 경기 침체, 메르스의 영향으로 빠르게 하락하고 있음

· 필수 소비 품목에 대한 소비지출 부담이 과거에 비해 완화되었지만 아직까지 경기민감 품목의 소비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 소비심리와 실제소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소비심리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당분간 소비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특히 저소득층,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소비심리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이들의 실제소비가 영향을 받을 우려

○ 확장적 재정정책 유지, 기업 투자 확대 등을 통하여 경제주체들의 미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저소득층, 고령자를 중심으로 소비심리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

첫째, 확장적 재정정책 유지, 기업 투자 확대, 경기민감 산업 지원 등을 통하여 경제주체의 소비심리 악화를 차단해야 한다

- 정책 당국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내 유효수요를 창출, 경기 회복력을 강화하여 경제 주체의 심리 악화를 예방

· 적기에 편성된 추경예산안은 각 경제 주체들에 대해 경기 회복에 대한 심리적 기대감을 고조시킴으로써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추경은 영세자영업자 지원, 저소득층 바우처 지급 등 민간소비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편성

· 소비여력 확충, 투자 관련 규제 완화 등의 경기 회복을 위한 미시정책의 뒷받침 필요

-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기업활력 제고가 고용창출력 확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
 - 일자리와 투자를 늘리는 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세제 감면이나 정부 보조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마찰적 실업 최소화 등을 통해 시장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임
- 소비심리 악화로 피해가 예상되는 외식, 여행, 교양·오락·문화 등 경기민감 산업을 중심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늘릴 필요
 - 메르스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 여행, 교양·오락·문화 등 경기민감 산업에 소상공인 육성자금 및 운전자금 등 금융지원대책을 강화

둘째, 급락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소비심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이 필요하다

- 저소득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소득 및 소비 지출의 불확실성 완화
 -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⁶⁾ 등 근로빈곤층을 위한 일자리 대책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상용근로자 비중을 늘리기 위한 정책 마련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다양한 눈높이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여 소득의 안정성을 확보
 - 저소득층 자영업자들에 대한 금융 지원 및 경영컨설팅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켜줄 필요
-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생활지원 자금, 학자금 등 사회안전망과 연관된 서민금융의 강화
 - 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생계비를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
 - 경기 침체에 따라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은 장기적인 소득 창출 방안 마련도 중요하나 단기적인 생활 자금 마련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

6)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증진→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

므로 자금 조달이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

셋째, 고령층이 소비심리가 악화되지 않도록 사적연금 활성화, 가교일자리 마련 등의 정책도 보완되어야 한다

-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고령층의 노후 안정을 유도하고 사적 연금, 고령층 대상 보험 등을 활성화해 노인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개인연금, 고령층을 위한 다양한 보험 상품 출시, 역모기지 활성화 등 노후 생활비가 안정적으로 조달될 수 있는 환경 마련

- 근로가능 노년층에는 공공근로사업 등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는 가교일자리(bridge job)를 마련
 - 고령층 일자리 확충을 위해 65세 이상 인구가 최저생계비 수준의 노후소득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퇴직 후 다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소위 가교일자리 마련이 필요함

경제연구본부 김천구 선임연구원 (2072-6211, ck1009@hri.co.kr)

< 부록 >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지수(CSI)

조 사 항 목		조 사 내 용
경제인식	현재생활형편 ¹⁾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
	현재경기판단 ¹⁾	"
경제전망	생활형편전망 ¹⁾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 전망
	향후경기전망 ¹⁾	"
	취업기회전망 ²⁾	"
	금리수준전망 ²⁾	"
소비지출전망	가계수입전망 ²⁾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 전망
	소비지출전망 ²⁾	"
가계저축 및 부채	현재가계저축 ²⁾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
	가계저축전망 ²⁾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 전망
	현재가계부채 ²⁾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
	가계부채전망 ²⁾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 전망
물가전망	물가수준전망 ²⁾	현재와 비교한 1년 후 전망
	주택가격전망 ²⁾	"
	임금수준전망 ²⁾	"
	물 가 인 식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
	기대인플레이션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주 : 1) 100보다 큰 경우 긍정적으로 응답한 가구수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가구수보다 많음을, 100보다 작은 경우 그 반대를 나타냄.

2) 100보다 큰 경우 증가 또는 상승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수가 감소 또는 하락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수보다 많음을, 100보다 작은 경우 그 반대를 나타냄.